

하나 둘 불 꺼지는 공장... 전남 경제의 '심장' 이 식어간다

위기의 여수산단

〈상〉 불황의 실태

전남 경제의 '심장'인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활력이 사라졌다. 고유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수요 둔화, 중국·중동 등의 저가 공세 등이 겹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매년 감소하면서 여수시의 세입 감소, 직원 임금 동결 내지 삭감 등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주요 상권의 불도 꺼지고 있다. 광주일보는 여수산단과 전남 동부권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전남도의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 6일 찾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 국내 한 석유화학 기업 소유 약 3만㎡ 규모의 공장은 가동을 멈춘 채 직원 한 명 찾아보기 어려웠고 적막함만이 흘렀다. 가동 중인 석유화학 공장에서 굉음을 뿜어내는 것과 달리 이 공장에서는 소음은커녕 새침 광양탄의 비뚤비람 소리만이 공장 부지 안을 가득 채웠다.

최대 150명이 동시 근무했던 이 공장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사무 업무를 보던 붉은색 벽돌 건물마저 입구가 굳게 닫혀있었다. 공장 내부로 깊숙이 들어서자 '출입금지'라고 적힌 붉은색 띠가 눈에 들어왔다. 붉은색 띠는 공장 설비 전부에 걸쳐 둘러져 있었다.

이 공장 내부에서는 또 약 가로 2m, 세로 10m가량의 화물용 깔판 위에 성인 가슴 높이만큼 쌓여 방수포에 덮인 채 고무밴드로 공장 묶여있는 물체 더미가 공장 곳곳에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장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나 완구 등에 쓰이는 고성능 플라스틱인 'ABS'다"며 "인근 공장에서 제작했으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여 창고가 부족해 지자 이곳에 쌓아둔 것"이라며 공장이 야적장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87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무려 37년 만인 지난해 4월 멈춰섰다. 석유화학 원료이자,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SM' (Styrene Monomer)을 생산해왔지만 타 국가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싸지면서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본사인사

▲ 장필수 : 논설실장

▲ 채희중 : 디지털본부장

〈2월 10일자〉

문 닫힌 공장 '출입금지' 팻말
방수포 덮인 제품 공터에 쌓여
지난해 1분기 생산액 22% 감소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도 급락

전남 산업의 '심장'인 석유화학산업이 끝을 모르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수직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지역 경제를 지탱해오던 석유화학의 위기는 곧 전남 산업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9월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여수산단 생산액은 21조4564억원으로 27조4256억원을 기록한 2022년 3분기에 견줘 2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2년 약 50조원이던 여수산단 수출액은 지난 2023년 42조원으로 16%나 줄었다.

전남 석유화학산업은 '러-우 전쟁'으로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과거 국내 생산 제품을 수입하던 중국이 자체 생산에 돌입했고, 중동도 고도화된 기술로 석유화학산업에 뛰어 들면서 글로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됐다. 중국과 중동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쏟아내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누적 영업손실만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을 결정한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여수산단 NCC 가동률은 78.9%로 지난 2021년 대비 17.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7년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마저 나온다.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 기업 30개사 8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친환경,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석유화학 대기업의 부진으로 사실상 하도급업체인 여수지역 플랜트 기업들의 불황도 깊어지고 있다. 여수지역 플랜트산업도 종사자만 1만5000명에 달하는 지역 주요 산업 중 하나다. 플랜트 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석유화학 공장 설비를 일장기간 경사지 보수하는 '대정비'와 신장설 공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늘어나면서 대정비 일감이 줄었고, 신장설 공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설비 유지보수에 의존적인 플랜트산업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산단 개설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쟁입찰 제도 속에 일감이 줄어들어 경쟁은 심해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수·김민석·김창화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고유가와 중국·중동의 저가 밀어내기 전술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동을 중단하는 석유화학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일 여수국가산업단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수산단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빙속·쇼트트랙...빙상 남녀 '금빛 질주'

2025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금 11·은 9·동 7 '순조'



한국 대표팀이 지난 7일 개막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오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한국 대표팀은 8년 만에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슈퍼 골든데이'를 만들며 쇼트트랙 최강국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대표팀은 9일까지 총 27개(금 11개·은 9개·동 7개)의 메달을 휩쓸며 이날 현재 종합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전체 9개 금메달 중 6개를 휩쓸며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고 한국 쇼트트랙 위상을 드높였다. 메달 매지 첫 종목인 혼성 2000m 계주 결승에서 김길리·최민정(이상 성남시청)·박지원(서울시청)·김태성(화성시청)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매달 사냥'의 신호탄을 쏘았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3관왕(혼성 2000m 계주·여자 500m·여자 1000m)에 오르며 최다관왕 타이 기록을 세웠고, 취약 종목으로 꼽혀 온 여자 500m 경기에서 정상에 올라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난 8일 열린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길리는 1000m 경기에서 1분 29초 739로 은메달을 따내며 선전했고, 남자 1000m에서는 장성우(화성시청)가 1분 28초 304로, 박지원(1분 28초 829)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장성우는 이 종목에서 통상 첫 번째 시니어 국제종합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빙속(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여자 단거리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이 3개의 메달(금2·은1)을 챙겼다.

김민선은 이날 여자 500m에서 38초 24로 동계아시안게임 개인 첫 금메달을 따냈고, 이나현은 같은 종목에서 38초 33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2023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의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했던 이재운

은 생애 첫 아시안게임 경기에서도 '금빛 연기'를 펼쳤다. 이재운은 12~13일 주 종목인 하프파이프에도 나서서 2관왕을 노린다.

이승훈(한국체대)은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7.5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우승을 차지, 한국 프리스키에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다. 이밖에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인 김소희(서울시청)는 1, 2차 시기 합계 1분 34초 06을 기록, 마에다 치사키(일본·1분 33초 50)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한 김경애(강릉시청)와 성지훈(강원도청)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5-6으로 저 준우승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12시간만에 만나는
로맨틱 산토리니!

4/27, 5/4, 5/11, 5/18 [단 4회]

광주→인천공항 왕복 리무진 제공
출발일별 20명 이상
광주지사 예약시

가부심이 되는 여행
창립 54주년 특별기획

대한항공 아테네 특별 직항 전세기
그리스
6천개의 섬과 그보다 많은 신화

그리스 항공 일주 9일
품격 8,390,000 원~

선착순 6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2/23 까지)

- 산토리니 특급호텔 2연박 + 크레타 특급호텔 2연박
- 전 일정 7박중 5성급 특급호텔 6박
- 국내선 2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파르테는 신전 View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송아지 코스요리
- 지중해 태양을 담은 산토리니 와이너리 투어

[정부인가조건]

롯데관광이 만든 프리미엄 여행 - 하이엔드
HIGH&
비즈니스클래스 / 5성급호텔 / 18식 한정판대
전문상담 : 02)2075-3111

대한항공 조지아 특별 직항 전세기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3개국 9일
품격 6,390,000 원~

선착순 5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2/23 까지)

- 카즈베기의 낭만 가득한 하룻밤 'ROOMS HOTEL KAZBEGI'
- 트빌리시의 야경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항공 이동 1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피티치드 가득한 카즈베기 & 아자트 EASY 트레킹 2회
-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O쇼핑 & NO음식]

[정부인가조건]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가면포함 여행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가이드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정보안내] ●여행유의 / ●여행자제 / ●환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중요구경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비지 : 인천/김해/대구/무안/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